

# 6월항쟁의 야전사령관 부산의 자부심 노무현



##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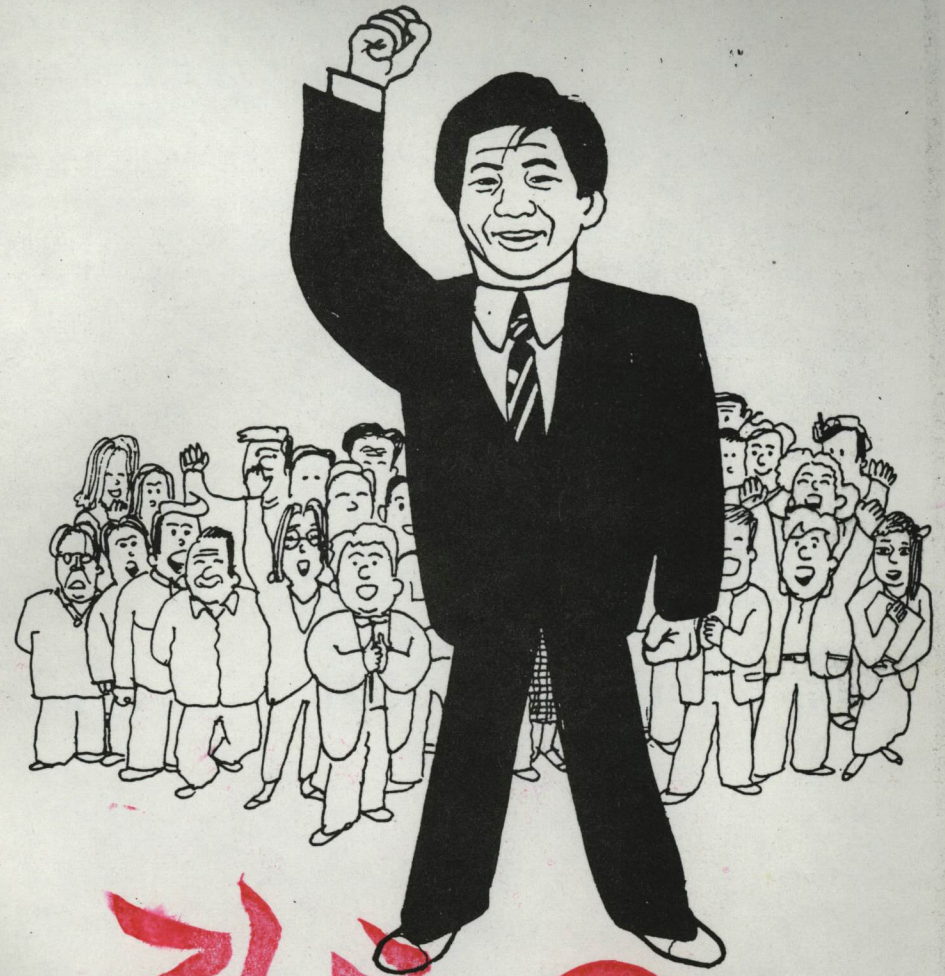
- 부산상고 졸업 (66년)
- 제 17회 사법시험 합격 ('75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77년)
- 부산에서 변호사개업 ('78년)
- 부림사건의 변론 이후 학생·노동·인권 사건 등 변론 ('81 이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발기인 및 상임위원장 ('85년)
-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87년/'88년)
- 故 박종철 및 이한열 추모대회집행위원장 ('87년)
- 6·10시민대행진 집행위원장 ('87년)
- 대우조선 이석규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 ('87년)
- 11월 변호사업무 정지처분 당함 ('87년)
- 민주쟁취국민운동공정선거감시 부산본부장 ('87년)
- 노동법률소 소장 (현재)

통일민주당 노무현후보 (동구) 선거대책본부

전화 : 47-3711/2, 3735/6

위치 : 부산일보와 KBS 사이 중간

# ■ 6월항쟁의 야전사령관 노무현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 세상으로!



글·그림 : 통일민주당 노무현후보 (동구)  
선거대책본부

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

#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가 이렇게 모였음은 저 6월의 정신을  
이 땅에 심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외치는 것은  
자유와 평화 넘쳐난  
아,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싶음이다.”



“지금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집일자: 4월 7일~14일.

모집대상: ●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청년·학생  
● 타지역 거주자 일지라도 반민정당 투쟁의  
대의에 동참할 청년·학생

연락처: 47-3711~2, 47-3735~6  
(부산일보와 KBS사이 참숯판매소 2층)



더러는 안방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생업에 여념이 없던  
우리에게 저만치 낯설게  
서 있던—그가—

오늘 불현듯  
우리들 앞에 가까운  
형제처럼 다가와  
허물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  
서 있었다.

시장과 거리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외로움에 몸을 사르던  
청년들 곁에서—

노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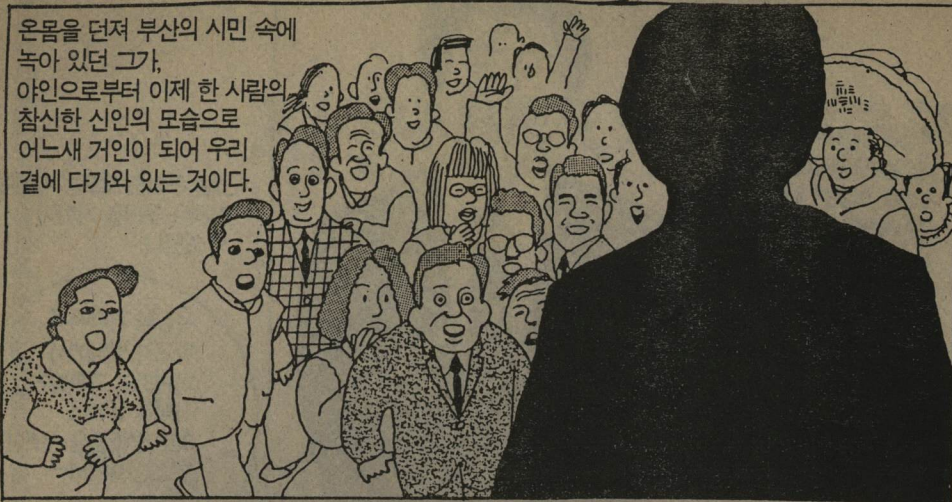
그는 바로 지난 해의 무차별하게 쏟아지던  
최루탄가스 속에서  
시민들과 한 덩어리로 서 있었고,  
박종철, 이한열군 추모식에서 우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대우조선의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일체가 되었으며

그 가슴 박동치던 6월!  
용솟음쳐 분출하던 시민항쟁의  
복판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민의 아전사령관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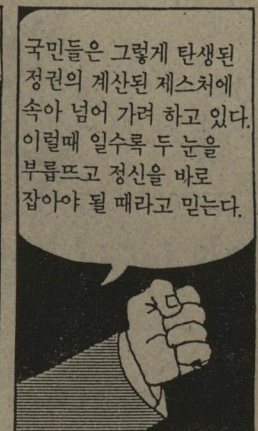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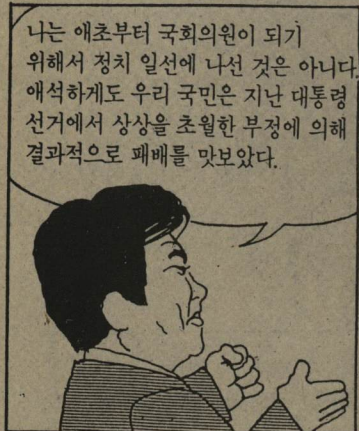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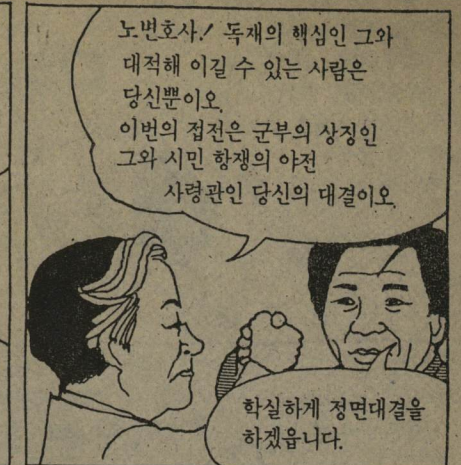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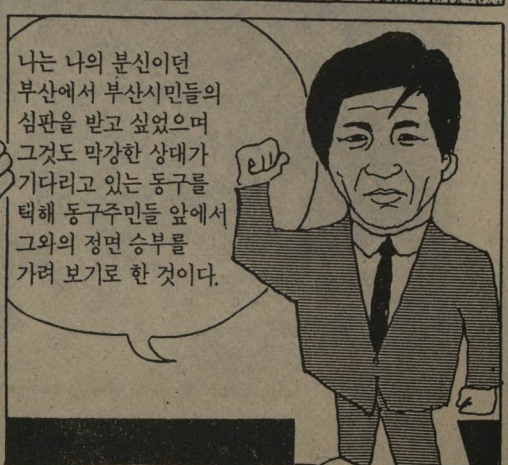


# 6월 항쟁의 야전사령관 노무현!

## 이제 그는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나는 이 나라 정치가 또다시 독재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영삼 전 총재의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간곡한 부탁을 여러차례 거절하던 끝에 총선 참여와 출마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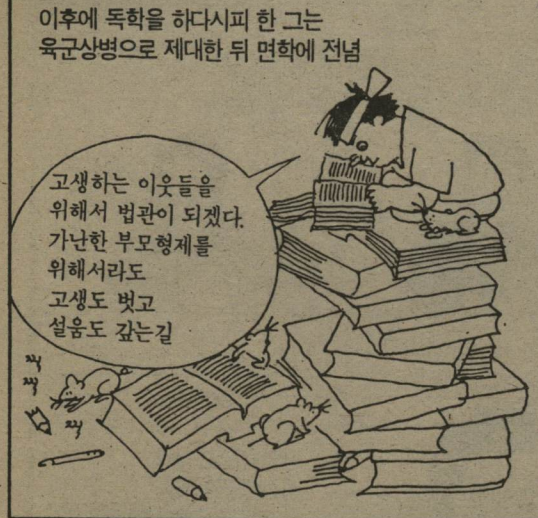


### 노무현, 그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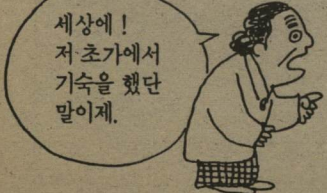
1946년!  
그는 경남 김해군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의  
다섯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김해의 진영에서 대창국민학교와  
진영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소년 노무현의 집안은  
가난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학을 건너 뛰었던  
그로서는 이례적인  
인간승리였다.  
훗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당시에 공부하던 곳을  
찾는데, 사진을 보면 그가  
어떻게 공부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욕봤구나, 아무렴  
말바닥 고생을 해본사람이  
서민의 고통을 아는  
법이다.

인물도 서글서글하고  
소탈해 보이지에

우리 옆집 아저씨  
같아예

깔깔깔  
자식하고 서있는  
품새보소, 정이 풀풀  
새 나온다.



그로부터 그에게는  
순탄한 가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하던 그는  
이듬해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출세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던  
어린시절의 꿈은 어디로 갔을까?  
돈 없이는 변호사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결국 변호사란 있는 사람의  
편에만 서는 존재가 아닌가?



상당기간 반성과  
회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인생을 달리하는  
일대 사건이 나타난다.

전두환·노태우·허삼수로  
이어지는 군부세력에 의해  
12·12구테타와 5·17정치탄압,  
5·18광주학살에 이은  
숨막히는 군정독재가  
시작되고있던, 81년



당시 부산대학교 출신  
10여명이 금서를 읽으며  
의식화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대거 구속되는  
이른바 「부림사건」이  
있었는데 변호사 노무현은 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사건을 맡으면서  
부도덕한 탄압군정의 실상을  
뼈저리게 목격하게 된다.



내 아들 좀 찾아 주소  
대공본실에 찾아가  
60여일을 연락한번  
못하고 있소  
우리 아가 무슨 죄가  
있소



세상에 빌퐁이  
까맣게 빠질 정도로  
고문을 당했어

변호사인 나마저도 첩자로  
의심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구나

아아,  
이것이 이 정권의  
실체구나

그는 그때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는 학생사건과 노동사건의  
무료 변론에 나서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할 결심을 하게 된다

부산은 물론 마산으로  
충무·울산으로, 대구까지  
뛰어 다니며 시국사건과  
노동자 해고 사건을 변론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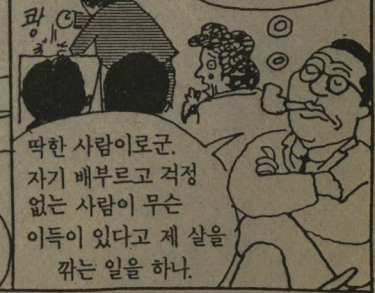
어서  
감시다.

변호사님,  
내 아들을...

변호사님,  
여기도.

재판장!

피고는 무죄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양심을 파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딱한 사람이로군.  
자기 배부르고 걱정  
없는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제 살을  
깎는 일을 하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짙어 있다. 부패와 부정이 정의를 짓밟으며 재벌과 권력은 한 통속으로 힘을 난사한다. 나는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이와 의로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권력의 비위를 건드린다. 언제 어느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지식이나 형제가 성고문, 물고문을 당하고 짐승처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 보고만 있겠어요?

아버지 또 재판장에 가?

그렇다. 내 지식도 크면 이 모순의 연장선에서 지금의 청년 학생들과 같은 고통도 당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의 훗날에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인 내가 바로 우리 세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85년 봄!  
부산민주시민협의회를 만든 노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저항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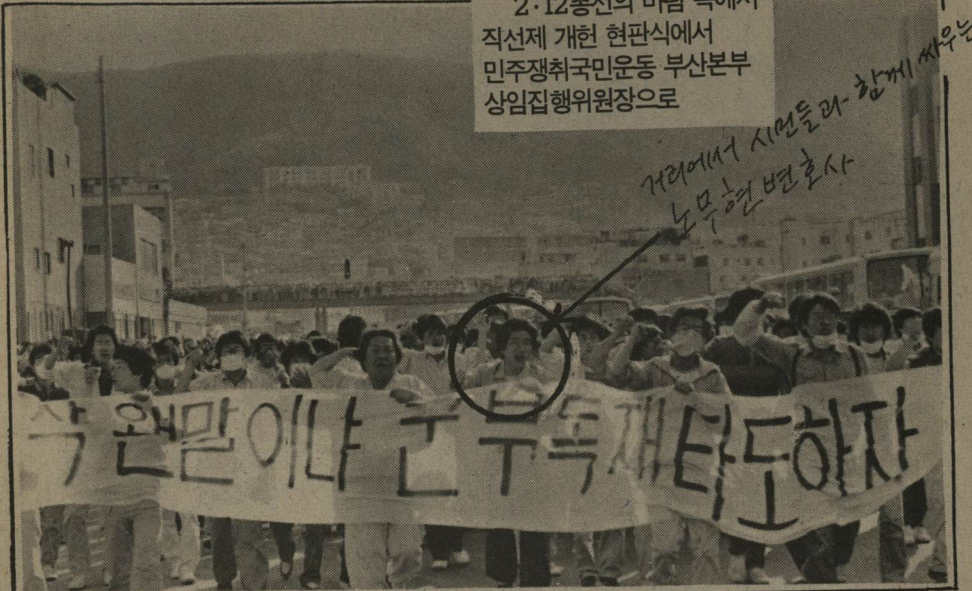
지식인이 불의에 항거하는 경우 대부분은 단체를 결성해도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서명을 하는 등으로 끝내 버리지만 노변호사는 직접 몸으로 항거한다. 어떤 경우에는 견디다 못해 땅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하곤 했다. 내가 보기엔 지식인 행동의 한계를 과감히 떨쳐 버리는 사람이다.



동료변호사 문재인씨

.. 노변호사는 .....

학원인정법 파동의 일선에서  
2·12총선의 바람 속에서  
직선제 개헌 헌판식에서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거리에서 시연들과 함께 싸우는 노무현 변호사

박종철·이한열군 추모대회 집행위원장으로 권력의 시녀화된 법정에서 집회와 강연장에서 최루탄 쏟아지는 거리에서 불철주야 몸을 몸을 던지고 한편으로 노동법률 상담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상담과 억울한 이의 대변자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소

87년 2월 7일!  
고 박종철군 추모대회에 관련  
구속영장이 3번이나  
청구되기도 했으며  
6월 10일 대회 때는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다.

사사건건  
끼어든 눈엣가시  
야, 저 자식  
잡아넣어!

8, 9월엔 마침내  
대우조선 이석규 장례식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업무중지  
변론자격 박탈!

봐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했지요  
기어이 당하누만

난 끝  
치러 가요.

6월 항쟁기간 동안은  
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부산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유인물과 확장기  
어디서 났는교?

호주머니 털었다  
우리집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김군 박군 자네들은  
몸을 피해야 한다.  
수배가 풀리거든  
다시 만나자

변호사님

그는 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청년들과 이별을 하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변호사님,  
내일의 작전을  
어떻게 할까요?

날이 밝아온다  
논의해 보자.

시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는 어느새 청년·학생과  
부산시민의 아전사령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역사의 순간에  
부산시민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나에게 기해진 탄압과  
박해 쫓 이 벅찬 민주 함성에  
의해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발을 내딛는 그의 정치 신심을 들어 보지요 하자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겠다.

반지르르한 사회의 이면은 잘사네 좋아졌다 해도 때 빠지게 일한 사람이 바보 소릴 듣기 일수도 먹고 살기 급급한 현실이다.

지식들 학비 대기도 배듯한 이 세상...

부정축제한 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특별 재벌 해체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을 육성해야 됩니다. 늘고 먹는 사람의 수입을 억제 하겠어요.

속임수로 들춰낸 새미들 대도, 전경환이도 빙산의 일각이고 빵아리 눈물인기라, 권력형 부조리 일해재단 등 모조리 해부해야 돼요. 전 현 정권의 실상으로 나라 가장 못잡아요.

하루 이자 수입만 5,000만원인 사람이 있다카데

히히히, 난 증권 투자해서 죄금 올렸지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나 어떤 재벌은 하루 60억을 올렸더라.

뭐고 지금 점백 아니가

크다, 50으로 하자

여, 김싸장 한판에 200만원 내기되다.

좋아요, 좋아요 저녁엔 사우나가서 몸풀고 요정으로 갑시다.

카~골프란 역시 중노동이야. 아유, 사는게 힘들어 니, 영계가?

우리사회는 모순과 부조리로 짝 차있다. 이것은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들 팔자 소관이 아니라 권력과 재벌들이 노동력과 물가와 임금을 쥐고 노는데서 벌어진 격차이다.

성실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 본들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여보 나 작년에 부은 적금 100만원 탔어요.

고맙소이다. 은행장 덕분에 땅 투기해서 수십억 벌었어요. 아나 니들 팀이다 100만원 씩이야

적어서 미안하다.잉.

축! 건배!

외세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통일의 기틀을 세우겠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는 분단의 비극에서 기인한다.

동일문제 전문가

우리의 분단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빚어졌다 미국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이용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군사작전의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수치가 아닌가?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우리의 통일을 내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지뢰 발이다. 미국의 전략에 의해 우리나라는 핵저장고가 되어 있다. 군사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승낙없이 핵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끔찍하구마 니고 내고 잣데미 되는거 아니가

장기도 못 가보고

어머, 싫어.

은 국토가 속밭이 되겠네

나는 독재와 싸우기 위해 몸을 던지고자 한다. 통일도 부패도 탄압도 독재에 의해 방해되고 자행된다.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도 독재의 수사에 불과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 부패를 가져올 뿐이다. 특혜자들만 대우하며 대다수의 대중들의 빈곤과 격차를 빚어낸다. 따라서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독재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민정당의 지역사업 공약은 사랑발림이다. 수십년 숙원이던 부산의 고등법원 유치가 공화당, 민정당을 거치면서도 안되더니 지난 2.12총선에서 민정당 후보 3명이 부산에서 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는가?

시집했제 그 사람들이 놀래서 곧 바로 고등법원을 안 지어줬나

맞다카이. 다음기회 노릴텐데 지역사업 안 할수 있나

부산 사람들이 버릇 고친 거라예.

나는 법정 한도액을 넘는 돈을 쓰지 않겠다. 지난 선거에서 노태우씨는 엄청난 돈을 뿌려 당장에 물가가 치솟았다. 결국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아니다! 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거시기 당

경제 전문가

이야. 얼른 허사 두껍게 저 거짓말 하는 것 좀 보라!

대기!!

우리가 사쓰는 상품원가 중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할이 넘지 않는다. 임금 10% 올라도 물가는 겨우 1%밖에 안 오르게 되어 있다. 기업가가 그들의 이익을 조금만 덜 챙기면 되는 것이다.

돈을 쓰면 반드시 그 이상을 뽑는기 쓰는 사람의 생리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거라.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돈 안쓰고 뽑는 전통을 만들어야 돼. 돈으로 표를 사려고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교만한 사람을 찍어서야 쓰나.

까놓고 말해 종철이를 죽인 자들이 누구냐 말이다.

그게야 군부독재 아니냐 군부독재가 어디서부터 왔노? 총틀고 정승화씨 체포한 12.12사태 아니냐.

그때 누가 주역이었지

비위도 좋제 그 군부의 전위부대 당사자가 뻔뻔하게 옷바꿔 입고 이 지역에 나타날꺼 아니냐

결국 종철이를 죽인자가 누군지 알겠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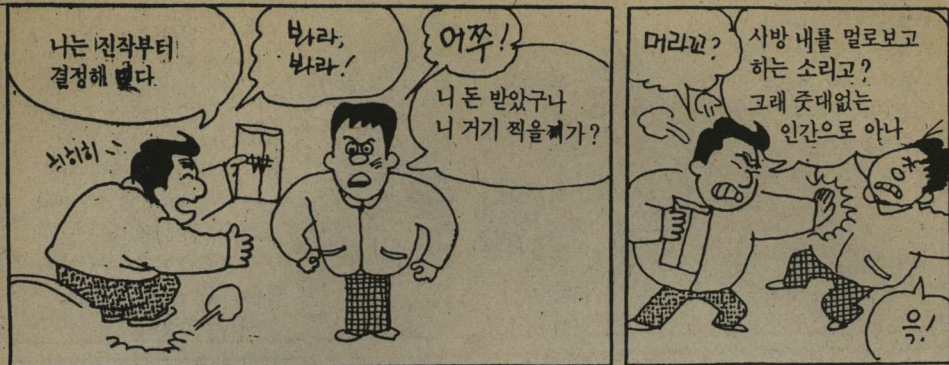
장철아, 걱정 마라이. 너 실망 만시킬 까짜

사람알기를 뭘처럼 알아 곤봉과 최루탄 세례에 삼청교육대로 끌려다가 사람을 병신만든 장본인들 아니냐

손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굴 찍어야 된다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군부독재의 상징과 민주의 양심의 대결은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걱정 마이소. 저도 확실히 결정 했어예.



# 노무현

## 그는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가?

반민주적 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다 경찰에 연행, 단식투쟁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전국 최초의 구속적부심 재판을 청구, 승리하였으나 결국 독재정권에 의해 변호사업무 처분을 당해야 했던 부산의 자부심, 노무현!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 국회 단상에 서고자 하는가.

### 1. 제6공화국은 5·5공화국이다.

전두환이 단임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민주화가 왔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경찰이 여당후보 창당대회장의 경비원으로 동원되고 '새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계속 등용, 공천되는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과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6공화국은 민주화를 떠벌리지만 그들의 민주화는 사이비 민주화다.

### 2. 민정당과 맞설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독재정권과 뿌리를 같이하는 민정당에게 조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야권의 분열을 공작하면서 독주하고 있는 노태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시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인사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 3.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편에 서고 싶다.

가난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동문제 무료상담을 도맡아 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구속된 학생들의 무료변론에 앞장서 부산경찰의 '눈의 가시'였던 인권변호사 노무현! 그는 국회 단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 4. 부산시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6월, 민주항쟁의 선두지휘자였던 그를 잡아넣지 못해 안달하던 독재정권에 의해 그는 현재 재판중에 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독재정권이 죄인인가 그가 죄인인가! 이제 그는 부산시민이 그 판결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

## 부산에서 '신바람나는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

인쇄일자 : 4 월 9 일

초판발행 : 4 월 9 일

발행일 : 4 월 10 일

출판 : 인쇄정보

발행자 : 통일민주당 노무현후보 (동구)

선거대책본부